

문화부 독립과 출판의 방향

康賢斗

서울대 교수·신문학

지금 우리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의 시련을 겪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곳곳에서 '질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사회의 '새로운 질서'의 탄생의 몸부림이라 보고 싶다.

정치가들은 권위주의의 청산을 외쳤고, 국민은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경제적으로는 노사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갈등이 첨예하다. 정치 경제와 불가분의 문화에 어찌 새로운 질서의 변화가 없겠는가. 물러가는 옛 질서가 家父長的 지배의 질서, 권위주의적 계도의 질서였다면, 새로운 질서는 민주적 자율의 질서라 한다면, 문화에도 권위주의적 '官文化'가 물러가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가 탄생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文化部를 신설한다고 한다. 公報에서 문화를 해방시키고 독립기구로 만드는 개편도 이같은 新秩序의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더 이상 문화가 公報의 '불모'로 잡혀 있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문화정책이나 문화행정은 너무나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홍보에 예속되어왔고 선전수단이 되어왔다. 이런 문화의 공보행정에서, 문화매체여야 할 매스 미디어가 정부의 홍보미디어, 선전의 미디어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었다.

한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내용을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문화혜택의 폭을 넓혀주는 문화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출판, 잡지, 신문, 방송, 영화 등이 정부의 홍보수단이 되어 이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활동은 억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출판미디어는 그러한 문화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출판은 매스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전통있는 미디어이다. 여러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문화적 미디어이다.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문화매체인데도 정부는 출판문화행정을 주로 公報행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문공부의 출판정책과 행정은 지원·육성보다는 규제와 감독, 허가와 검열이 주요 업무로 되어왔고,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출판문화는 곧잘 규제와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출판행정 상황에서, 출판문화는 자연 체제에 대한 저항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출판문화가 다분히 저항적 문화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 이때문이다. 우리의 출판문화는 대단히 저널리즘적 특성을 갖고 있다. 때로는 언더그라운드 저널리즘의 역할도 수행한다. 출판저널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출판인들도 있다.

이와같은 출판문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한편 출판문화가 지나치게 저널리즘 문화화하는, 특히 저항 저널리즘화하는 경향도 우려된다. 왜냐하면 저널리즘은 본래 時事的이고 當代的인데 비해 서적문화, 출판문화는 보다 영원성을 추구하는 문화표현이라고 본다면, 현대의 저널리즘 과잉의 출판문화는 그리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없지 않을까.

이제 문화부가 공보행정으로부터 독립된다고 한다. 또 매스 미디어의 문화적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신설되는 문화부가 매스 미디어의 문화정책을 올바르게 펼 때, 저널리즘 지향의 확립적 출판문화가 좀 가라앉게 되고 좀더 영원성을 추구하는 문화, 좀더 다양한 문화내용이 표현되는 균형잡힌 출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판과 문화 2 현대 프랑스 知性的의 요람 '갈리마르' / 金華榮

문학시평 4 해방전후사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전망 / 任軒永

초점 8 국립중앙도서관, 어떻게 달라지나

출판화제 6 학문·작품성과의 점검... 개인 全集畧

16 性풍속의 사회경제사적 토대 규명

17 책에 비친 '바람직한 아버지像'

연구소 출판 9 산업연구원의 「미래산업 시리즈」

서평 10 「동시대적 삶과 연극」—金錫滿

「연극의 이론」—윤정선

11 「중국의 우리 민족」—朴容玉

「恨의 이야기」—安炳茂

12 「핵전쟁과 인류」—송상용

「都市와 象徴」—黃琪源

13 「분석과 해석」—金薰

「프랑스 문학사상의 理解」—진형준

학대서평 14 최초의 방대한 한국문학사 작업 / 具仲書

얼굴 7 喜壽에 전집 낸 아동문학가 尹石重씨

15 「한국문학통사」 전 5권 펴낸 趙東—교수

저작권코너 18 선거홍보와 저작권 / 韓勝憲

저작구상 19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 외 / 李萬烈

작품구상 19 「신림동 이야기」 / 조성기

지금 독서중 20 李泳澤의 「韓國의 地名」—서양화가 金玟基씨

장신신의 「요즈음 中國人들」—광고디자이너 金柱良씨

21 그르니에의 「까뮈를 추억함」—영화감독 郭志均씨

초베탕 토도로프의 「바흐핀」—잡지기자 金惠基씨

22 白道基의 「우리들의 불꽃」—올림픽조직위 李幸哲씨

R. H. 마치의 「시인을 위한 물리학」—원자력산업회의 柳玶熙씨

23 서한집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유바프은행 鄭庭薰

지금 번역중 23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순천향대 강사 崔洪淑씨

교양논단 24 문학사회학의 영역과 전망 / 權五龍

해의화제 26 측근들의 '회고록'에 시달리는 레이건

세계의 출판 28 사랑과 미움의 천재 캐더린 맨스필드·外

책의 세계 29 「올림픽 액세스」 / 김호근

독자서평 27 「삶의 기둥이 된 아버지...」·「民族思想의 源流」

30 신간안내

38 어린이책 들춰보기

40 200자 안내 / 화제의 책

42 신간목록

46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47 출판계 움직임

48 독서퍼즐 정기구독 안내